

3

3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약(藥)의 사용에 관한 小考(소고)

한창 풋내 나던 시절에 여기저기 세미나를 한답시고 겁 없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이론도 이론이거니와 양돈현장의 경험도 알팍하던 때이니 그저 수의 사람 간판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지. 그런데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질문 받는 시간이면 꼭 단골로 올라오던 질문이 있는데 바로 약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항생제에 관한 것인데 '도대체 이런 증상엔 무슨 항생제를 어떻게 써야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요약 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딱한 노릇이지만 당시엔 그저 여기저기 월간지에서 봤거나 선전에서 떠들던 내용을 대충 얘기하는 것이 전부였음을 고백해야 하겠다.

그러나 세월이 제법 흘러 서당개 생활도 연륜이 쌓이고 여기저기 전공에 관련된 곳에 살짝 이름 석자 걸치고 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노우하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약 쓰는 방법이 생기던데... 새봄맞이 특집 겸해서 한 말씀드려 보자.

우선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의 경우인데, 매년 봄철이 되면 사료회사마다 환절기 크리닝 사료를 만들어 아주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전체적인 약값을 따지면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아주 일시적인 행사라서 눈치 빠른 사양가는 이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엄청 애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사양가가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허가된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종류와 첨가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환절기 크리닝 사료'라는 것도 실상은 매우 제한적인 양의 약제를 첨가한 것으로 그저 예방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 아주 흔한 예로 CTC(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라는 항생제를 들어보자. 사료공장에서 이약이 사료에 첨가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00ppm이다.(즉 사료 1톤에 순수 약성분이 100g만 첨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지간한 호흡기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800g을 첨가해야 하니 크리닝사료를 먹여서 우리 농장의 호흡기질환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딱한 노릇이겠지.

다음은 개체치료와 집단치료를 생각해 보자. 간혹 주사 놓기를 귀찮아하는 양반들은 돈군 내에서 어떤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견되면 그저 물이나



황 윤 재 상무
금오BPC

사료에 약을 섞어주고 마는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아픈 돼지는 식욕 또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기는 감기몸살에 걸렸을 때 밥이 잘 넘어가든가? 예를 들어 자돈에게서 뇌막염 증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자. 이들에 대한 치료효과는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이들은 신경증상 때문에 물과 사료를 맘대로 먹지 못하니 발견 즉시 개별적인 주사치료를 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돈군 전체에 대한 투약도 해야 하는데 이들은 물이나 사료에 약을 적절하게 타주면 효과적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물에 약을 타주라고 하면 그 계산을 엄청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사료첨가제의 경우는 '사료톤당 본제 몇kg을 타주셈' 하고 써 놓아서 이해하기 편한데 음수투여제의 경우는 다소 복잡한가 보다. '돼지 생체 몇 kg당 본제 몇 mg을 적용하셔' 뭐 이렇게 써놓았으니 컴퓨터가 적용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이럴 땐 이렇게 하자.

'우선 약을 먹여야 하는 돼지가 몇 마리 있는지 메모하고 돼지 체중이 대충 몇kg 나가더라?...'

생각 좀 해보고 서로 곱해주면 총중량이 나오겠지. 여기에 약봉지에 있는 kg당 투여량을 곱해주고, 답이 몇 만 mg으로 나오면 1,000으로 나누어 주면 몇 g의 약을 섞어 주라고 나오게 된다.(설명 드리다 보니 더 복잡해 보인다.) 아무튼 이걸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을 채운 물통에 넣고 먹이면 끝이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음수용 약제는 가끔 니플을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먹인 후 며칠간은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하나, 현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일인데 항생제를 이것저것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간단하려나? '섞어서 좋을 것 같은 약은 이미 다 섞어서 출시되어 있다'고... 물론 사용 편의상 항생제에 해열제나 소염제를 섞어 쓰는 건 봐줄만 하다.(솔직히 얘기하면 필자도 자주 이렇게 한다.) 그러나 항생제를 여러 가지 섞어 쓴다는 건 제발 말리고 싶다. **양돈**

토 · 막 · 상 · 식

●●● 상추와 깻잎

고기집에 가면 흔히 상추와 함께 깻잎을 내놓는다. 고기를 먹을 때 깻잎과 싸먹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더 좋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고기는 단백질과 인 등이 많이 들어 있는 뛰어난 식품이지만 비타민C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또 칼슘과 비타민 A도 매우 적다. 반면 깻잎에는 비타민A와 E, C, 칼슘이 많이 들어 있다. 고기에 부족한 영양소가 깻잎에는 듬뿍 들어 있는 것.

이 두가지를 같이 먹으면 맛도 깔끔하지만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줘 보강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럼 상추는 어떨까. 상추에는 프로비타민A는 비교적 많이 들어 있는 편이지만 비타민C는 조금 들어있다. 깻잎보다는 처지는 셈이다.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을 위해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되, 생즙보다는 날 것으로 먹는 게 좋다.

